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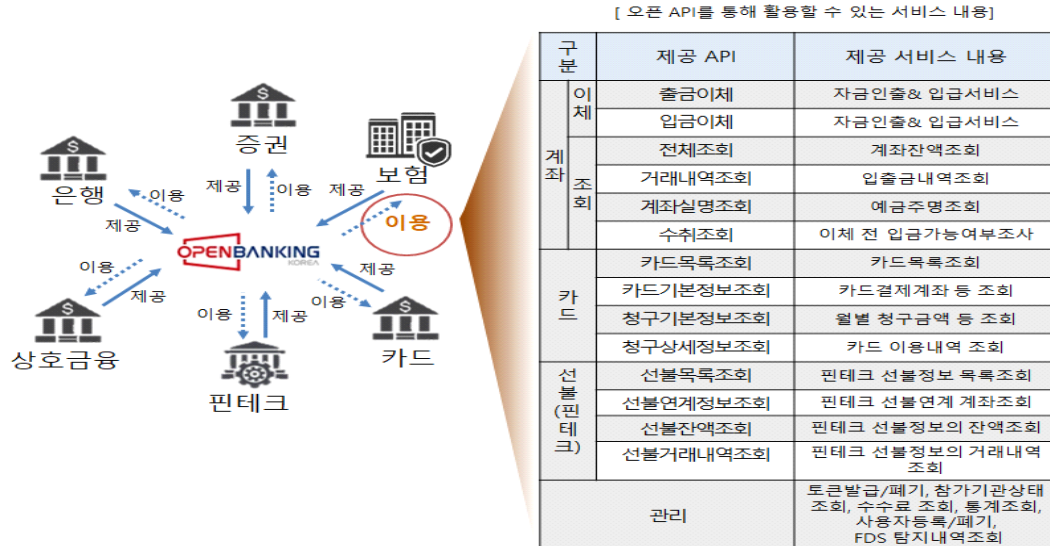
'19년 출범한 오픈뱅킹시스템은 현재 은행 외 타 금융권으로 확장과 시장 내 정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오픈뱅킹시스템 참여로 보험산업은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및 디지털 판매망의 용이한 구축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오픈 인슈어런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음. 보험고객의 정보공개에 따른 경쟁력 약화, 데이터 보안 등 우려가 존재하지만 오픈뱅킹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참여사의 금융 데이터 교환 및 조합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 주목하고 향후 성장의 기회로 만들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됨

- 고객이 하나의 앱에서 본인이 보유한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가 가능한 오픈뱅킹 공동업무시스템(이하, '오픈뱅킹시스템')¹⁾이 '19년 전면 시행되어 현재 은행 및 금융투자, 카드로 확대되어 서비스를 제공 중임
 - 조회 및 이체 API를 단일 플랫폼(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OPENBANKING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점에서 해외 오픈뱅킹과 차별을 가짐²⁾
 - 참여기관은 입금, 출금 이체, 잔액, 거래내역, 계좌정보, 송금인정보, 수취 조회 등 7개 표준API가 제공되며, API 이용 수수료도 이전 대비 최대 1/10으로 낮게 책정해 거래비용을 합리화함
 - 단, 오픈뱅킹시스템 참여기관은 일정 수준의 데이터 개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계좌보유기관이 아닐 경우 업의 특성에 맞춰 정보공유 내역을 별도 협의하여 제공하도록 함³⁾
 - 오픈뱅킹시스템은 지난 '19년 중소형 핀테크 사업자에게 개방한 이후 증권사·상호금융사('20. 12), 저축은행('21. 4), 카드사로('21. 5)로 이용기관을 확대하여 현재 120개 금융사 및 핀테크사가 참여 중임
- 출범이후 참여기관과 가입자 및 등록계좌 수가 지속 증가하여 단기간 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⁴⁾
 - '21년 10월 기준 국내 경제활동인구 대비 약 105%가 오픈뱅킹시스템을 가입(순 가입자 수 기준 약 3천만 명)하고 있으며, 등록계좌 수는 '21년 말 기준 1억 개를 넘음

1) 오픈뱅킹시스템은 고객의 금융데이터를 제3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뱅킹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인프라 및 법 정비와 신서비스 신설 즉,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과 지급지시서비스업(마이페이먼트 산업)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2) 영국, EU 등 해외의 경우, 조회API 위주로 제공되고 있으며 단일 플랫폼이 아닌 표준API 제공사(주로 핀테크사)가 개별적으로 제공함
 3) 보험회사가 오픈뱅킹시스템 참여 시 제공해야 할 데이터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나 마이데이터에 제공하는 데이터에 준하되 별도 협의과정을 거칠 예정임
 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 12), "오픈뱅킹 시행 2년이 만든 디지털 금융혁신 성과"

- 누적 거래량은 약 84억만 건이며 매일 약 2천만 건(금액기준 1조 원)의 거래가 오픈뱅킹시스템을 통해 처리되고 있음

〈그림 1〉 오픈뱅킹시스템의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자료: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세미나 자료」를 재구성함

○ 오픈뱅킹시스템이 타 금융업권으로의 확장되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오픈뱅킹 시스템 참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 그동안 보험업권은 내부 디지털 역량 확보에 집중하면서 오픈뱅킹시스템 참여에 미온적 태도를 유지해 왔음
- 지난 금융위-보험업계 간담회('21. 11)를 통해 보험업계의 오픈뱅킹시스템 참여 의견 제시 이후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 오픈뱅킹 정책 기반 디지털 사업모델 확장성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함

○ 보험회사의 오픈뱅킹시스템 진입에 관심 증가의 이유는 금융 전 영역에 걸친 고객 및 금융상품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 가능하고 나아가 다양한 참여사와의 협력이 용이하기 때문임

- 오픈뱅킹시스템을 통해 얻어지는 금융거래, 지출정보 등을 조합하여 자산관리, 간편송금, 신용평가 및 분석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금융자문, 위험 관리 및 보험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Allianz는 자체 오픈뱅킹 플랫폼인 HeyMoney⁵⁾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알리안츠 고객은 HeyMoney를 통해 자신의 은행계좌 정보를 수집하고 금융 계약을 관리하며, 알리안츠가 제공하는 금융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음
- 또한 오픈뱅킹시스템 안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 혹은 비금융사들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디지털 판매망을 용이하게 구축할 수 있으며, 비금융사들의 니즈에 맞춰 다양한 임베디드 보험도 제공 가능함
 - 임베디드 보험이란 비보험회사에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번들(Bundle)처럼 다른 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는 보험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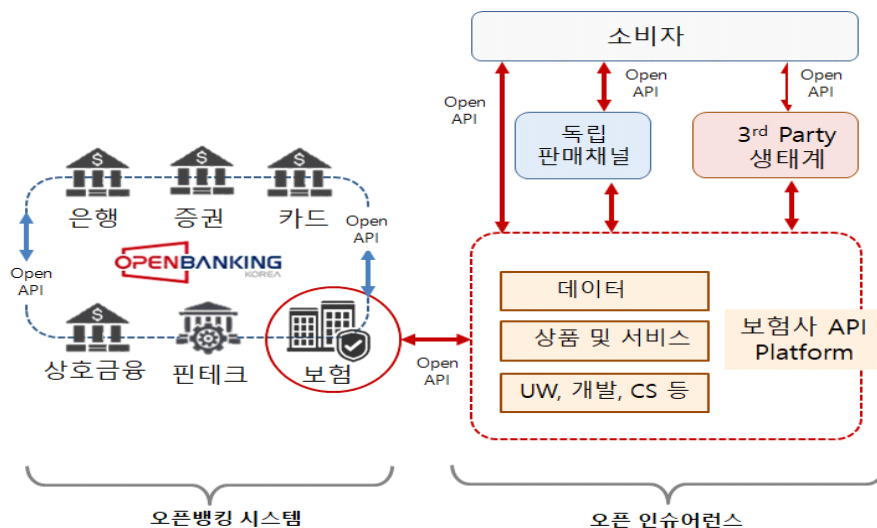
5) Allianz X(알리안츠 그룹의 디지털 벤처 투자회사)가 설립한 애플 기반 금융플랫폼 핀테크사인 IconicFinance의 브랜드 네임임

- 벨기에 인슈어텍 Qover는 오픈뱅킹을 활용하고 있는 영국 네오뱅크인 Revolut에게 데이터를 제공받고 이를 기반으로 Revolut에 맞춤형 보험을 제공함⁶⁾

○ 오픈뱅킹시스템 참여는 다양한 산업의 데이터 접근이 가능한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연계되거나 오픈 인슈어런스를 구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험회사는 오픈 API 기반 생태계의 구축도 기대할 수 있음

- 오픈 인슈어런스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보험정보 혹은 계좌정보에 타 보험회사 또는 제3의 서비스 제공자(3rd Party service providers)가 오픈 API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을 의미함⁸⁾
 - 오픈뱅킹시스템 참여를 통해 보험회사 내 오픈 API 및 비보험 데이터 활용 경험을 축적할 수 있음
 - 오픈 인슈어런스라는 API 개방을 통해 보험회사는 제3의 서비스 제공자와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기존 체제에서 발현되지 않은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를 만들 수 있으며 기존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 경험 제공도 가능함⁹⁾
 - 독일 대형 일반보험 보험회사인 HDI는 오픈뱅킹 솔루션 제공 스타트업인 Optipay와 함께 금융 컨설팅 플랫폼(HDI Finanzassistent)를 설립하고 보험회사가 주도하는 오픈 API 기반 보험생태계를 구축함¹⁰⁾
- * HDI 개인 고객은 HDI Finaazassistent를 통해 자신의 지출 패턴에 따라 보장이 필요한 순간에 보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HDI 내 SME 고객은 개인 고객에게 정보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개인 고객이 보험료로 사용할 수 있는 캐시백을 개인에게 제공함

〈그림 2〉 오픈뱅킹시스템 참여와 오픈 인슈어런스로 확장(예)



자료: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세미나 자료」를 재구성함

6) Revolut의 계좌 중 특정 계좌에 도난, 사기, 공연취소 등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추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7) 금융당국 역시 다양한 데이터와의 연결을 통해 개인화된 금융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 플랫폼' 도입을 추진 중임
 8) 정인영(2021. 3), 「'오픈 인슈어런스'에 대한 논의와 과제」, 『KIRI 리포트』
 9) 예컨대, GPS 정보를 활용하여 항공권 구입이나 공항 이용 시 여행자보험 상품 가입이 가능하며, 고객의 특정 연령 사건과 관련된 맞춤형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음(정인영(2021. 3))
 10) Oxbow Parters(2021), "Navigating the Digital Decade"

○ 반면 오픈뱅킹시스템의 참여는 타 금융기관 및 핀테크 기업에게 고객 및 보험 정보공개에 따른 보험회사 경쟁력 약화,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관리 등 소비자보호 이슈 등을 야기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오픈뱅킹시스템 참여 시 상호주의에 입각해 타 금융회사는 보험 고객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이때 타 금융회사의 플랫폼 역량이 뛰어날 경우 보험회사 기존 고객의 이동이 발생 가능해 보험회사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
 - 예컨대, 금융지주 및 빅테크 기업 등 고객접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이 보험회사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사의 플랫폼에 보험상품을 제공하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보험회사 기존 고객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시장참여자 고객정보의 교환, 활용 증가 및 데이터 결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데이터 유출 등 개인정보 보안 및 위험집단 간 차별, 금융소외 등 소비자보호 문제도 발생 가능함

〈표 1〉 오픈뱅킹시스템 참여의 비용과 편익

내용	소비자	보험회사
편익 (기회요인)	• 보험을 포함한 전 금융정보의 자기 정보통제권 확보로 주체적 금융 선택 가능 • 맞춤형 자문 및 금융 상품 접근성 강화	•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 비금융사와의 효율적 협력망 구축으로 디지털 채널 및 신사업 모델 창출 • 오픈 인슈어런스로의 확장 계기 마련
비용 (위협요인)	• 개인 데이터 유출 및 오남용 가능성 • 금융소외	• 시장 참여자가 공정경쟁 이슈, 경쟁력 약화 •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 오픈뱅킹시스템 활용을 미래 보험시장 성장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오픈뱅킹시스템은 단순히 데이터에 기반한 효율적 판매 도구가 아닌 소비자 및 다수의 참여사들의 데이터를 재결합·활용하여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임에 주목하고 참여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오픈뱅킹시스템 나아가 오픈 인슈어런스를 통해 성과를 내기 위한 핵심 경쟁력은 소비자 및 타 참여사의 금융데이터의 재조합·분석 역량이며, 이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에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 자신이 오픈뱅킹시스템으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이용하여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우선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